주 제:	"기도"	"연중 제 5 주일"	2009 년 2 월 8 일
복음 묵상:	[마르 1,29-39]	[신명 18,15-20	[1 코린 7,32-35]

오늘 예수님께서는 열병으로 누운 시몬의 장모를 비롯하여 갖가지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치유의 기적은 마법사가 주문을 외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이들에게 다가가 직접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 모두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환자를 만나다보니 인간이신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지치셨으며, 휴식이 필요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친 몸을 이끌고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복음 선포의 의지를 불태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일치했고, 기도 중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힘을 얻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휴식을 취하여 힘을 얻기 위해 좋은 음식점을 찾아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거나, 좋은 온천이나 찜질방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일미사를 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성당에 나와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만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인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듯이, 우리가 정말로 쉬어갈 수 있는 곳은 성당이며, 하느님 품입니다.

미사를 봉헌하러 성당에 오는 나의 발걸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미사를 봉헌하면서 온갖 분심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파견강복을 받고 성당을 나서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품에서 편안히 쉬어가며 복된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수원 이 정훈 신부님 강론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알토의 신행주 요세피나 자매님의 쾌유를 빌면서** 알토파트에서 매일 시간을 정하여 각자 **묵주기도**를 같은 시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시간을 정하여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 9 시 30 분/ 오후 1 시 / 오후 9 시 30 분.**
- **인후자 엘리사벳 자매님**; 긴 여행 무사히 마치고 지난 주 돌아오셨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지사항;

1. 금주부터 **미사후 연습이**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 **각 파트별로 주중 연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알토 파트; 2/9(월) 오전 11 시 최 효원 도미니카 자매님댁
   남성부 (테너, 베이스); 격주 금요일 저녁 7:30 pm (최 단장님댁 2/6 일 첫 모임)
   소프라노; 지난 주 단합대회를 하였습니다. 연습일정 추후 통보
3. **성가 연습 자료실 안내**
   - 성가대에서 연습하는 거이 모든 곡을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음원을 본당 성가대 웹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연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5240
   - **화답송은** 웹에 성가대 연습실에 각 파트별로 올라있으니 연습을 하십시요.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1080

✚ 복음 [마르 1,29-39]

얼마 뒤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에 들어 가셨다. 때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께 알렸다. 예수께서 그 부인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열이 내리고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병자와 마귀들린 사람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 왔으며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들었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시며 자기 일을 입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마귀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예수께서는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고 계셨다. 그 때 시몬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다니다가 만나서 "모두들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근방 다음 동네에도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갈릴래아 지방을 두루 찾아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마귀를 쫓아내셨다.)

1분 명상 ♡ . ♡

휴대용 젖병, 보온 젖병, 작난감 젖병

작은일에도 감동할 수 있는 순수함과
큰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대범함을 지니게
하시고
적극적이고 치밀하면서도 다정다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실수를 솔직히 시인할 수 있는 용기와
남의 허물을 따뜻이 감싸줄 수 있는 포용력과
고난을
끈기있게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더욱 길러
주옵소서.

직장인 홍역의 날들을 무사히 넘기게 해주시고
남보다 한 발 앞서감이 영원한
앞서감이 아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또한, 한 걸음 뒤처짐이 영원한 뒤처짐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반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한사람이 되게 하시고
매사에 충실하여 무사안일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 보람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직장을 그만두는 날
또한 생을 마감하는 날에
과거는 전부 아름다웠던 것처럼

내가 거기서 만나고 헤어지고 혹은 다투고
이야기 나눈 모든 사람들이 살며시
미소짓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는 따뜻한 편지중에 따라지

오늘의 말씀 사탕; "주님께서 집을 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주님께서 성읍을 지켜 주지 않으시면 그 지키는 이의 파수가 헛되리라." (시 127,1)